

GALLERY



2009-2010_Beyeler_008.

미국 개념미술 작가 '제니 홀저' 개인전

언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정치 이슈를 부각시킨 '전광판' 작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개념 미술 작가 제니 홀저의 개인전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004년 첫 개인전에 이은 국내 두 번째 개인전으로, 문장들을 건물에 투사시킨 뒤 이를 촬영한 흑백사진,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이용한 작업과 대리석 조각 등 작품 23점을 선보인다.

홀저는 자신의 작품에서 언어를 가장 주요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1996년부터 세계 곳곳의 건축물과 풍경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투영시키는 '라이트 프로젝션'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움직이는 필름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건축물이나 풍경에 비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뉴욕, 베네치아, 런던의 공공장소에서 진행된 '라이트 프로젝션' 작업 이미지를

선보인다.

또 벽에 비스듬히 세워진 '뉴 틸트(New Tilt)'와 수많은 LED가 서로 어긋나게 설치된 '뉴 코너(New Corner)' 등 올해 제작된 LED 신작 2점과 대리석에 메시지를 담아낸 '풋스톨(발 받침대)' 조각 8점도 전시된다.

전시 10월 16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3-8449

GALLERY

독일 뉴-라이프치히파 작가 팀 아이텔의 아시아 첫 개인전

전시 10월 23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4937

음울한 분위기가 감도는 길가 그늘진 구석의 테이블에 남자 다섯 명이 둘러앉아 있다. 화면 속 남성들은 관객을 등지고 있거나 고개를 떨어 뜨리고 있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단지 화면 전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음울한 분위기를 통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우울함,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 갤러리에서 독일 출신 작가 팀 아이텔(Tim Eitel)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더 플레이스홀더스(The Placeholders)'전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여는 아이텔의 첫 개인전이다. 2000년 무렵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아이텔은 독일 현대회화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뉴-라이프치히파 작가이다.

작가는 그동안 독일과 미국 등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뒤 이들을 다시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 속에 배치했다. 그는 낯선 장소에서 방황하는 여행자,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는 노숙자, 지쳐 잠든 노동자의 모습에서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겠지만 모호한 배경 속에서 표정이나 움직임 등 세밀한 부분들이 배제돼 특징이 아닌 관객 누구도 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

Five Men around a Table, 2011, Oil on Canvas, 175x210cm.



프랑스 대표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마이 웨이' 전

전시 11월 27일까지(월요일 휴관)
관람료 5천 원
문의 02-2014-6552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명성의 현대미술가 중 한 명인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의 25년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중간 회고전 '마이 웨이(My Way)'가 서울 태평로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전시에 이은 세계 순회전의 첫 번째 전시로, 도쿄의 하라 현대미술관과 뉴욕의 브루클린 미술관에서도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펼쳐온 오토니엘은 1980년대 초기작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상처를 녹여 낸 설치, 드로잉, 비디오 퍼포먼스 등 60여 점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영롱하게 빛나는 투명하고 거대한 구슬이나 형형색색의 왁스, 유황 등을 사용해 언뜻 밝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작가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성애자인 작가가 어린 시절 사제를 꿈꾸던 한 신학생을 사랑했지만 그가 종교적 신념과 사랑의 감정 사이에서 고뇌하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작가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제복'은 그의 이런 상처가 투영된 작품으로, 1986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누이가 바느질해 만들어 고이 간직해오다 일반에 최초로 공개됐다.

눈물들(Tears), 2002, Glass · Water · Table, 140x500x70cm, Louis Vuitton.



CINEMA



감독 황동혁 출연 공유, 정유미 개봉일 9월 22일, 청소년 관람 불가

공지영 원작의 충격 실화 '도가니'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강인호(공유)는 모교 교수의 추천으로 무진에 있는 청각장애인학교 '자애학원'에 미술교사로 부임한다. 인호는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의 얼굴과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교장과 행정실장, 생활지도교사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수년간 성폭행과 추행, 주먹질이 무자비하게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도가니'는 유명 작가 공지영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실제로 광주에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쓰인 이 소설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인터넷 연재가 총 1천6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는 스크린 속에서 자칫 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영리하게 걷어내고 초반부터 빠른 호흡으로 교장 일당의 만행을 보여준다. 그들의 만행은 영화 속에서도 끔찍하게 묘사됐지만, 제작진이 아이들의 신체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영화는 이어 법정 투쟁으로 넘어가면서 긴장감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들이 곧 벌을 받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인 징벌들이 피해자들을 차례차례 가로막는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례, 돈을 앞세운 가해자들의 합의 중용 앞에서 힘없는 아이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의 싸움을 벌인다. 그래도 조금씩 작은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정의가 악을 이기나 싶은 기대가 들 무렵, 영화는 세상이 그렇게 정직하게 돌아가지만은 않는다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아역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관객들을 자연스럽게 몰입시킨다. 책 속에서 활자로 접할 때보다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흐르는 눈물을 마주할 때 느끼는 슬픔과 분노가 더욱 명징하다.

CINEMA

NEW FILMS

1. 카운트다운

채권추심원인 태건호(정재영)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어 쓰러지고 병원에서 간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간이식 수술이 가능한 시간은 단 열흘. 목숨을 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태건호는 죽은 아들의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중 현실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는 차하연(전도연)을 만나 돈을 주는 대가로 수술을 약속받는다. 그러나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기꾼 차하연은 그녀에게 앙갚음하려는 조직폭력배 일당의 추격을 받고 태건호는 간 때문에 차하연의 사건에 휘말린다. 영화는 비교적 탄탄한 시나리오와 만듦새를 갖추고 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간'을 매개로 벌이는 숨바꼭질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별주부전'을 연상시켜 흥미롭다.

감독 허종호 출연 전도연, 정재영 개봉일 9월 29일, 청소년 관람 불가

3. 코쿠리코 언덕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각본을 쓰고 그의 아들인 미야자키 고로가 연출을 맡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새 애니메이션. 시대적 배경은 1963년. 열여섯 살 소녀 '우미'는 요코하마 항구 인근의 언덕에서 '코쿠리코' 하숙 집을 꾸려가며 살아간다. 어느 날 학교 선배 '순'에게 호감을 느끼고,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순에 이끌려 그의 활동에 점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우미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간 순은 돌아가신 우미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되고 자신이 양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진 속의 친아버지와 같다는 사실에 놀란다. 친남매인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아파한다. 이야기가 진부하긴 하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며 낡은 것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감독 미야자키 고로 개봉일 9월 29일, 12세 이상 관람가

2. 의뢰인

한 남자가 아내를 죽인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된다. 시신은 사라졌고 물증도 없다. 유능한 검사와 변호사가 이 남자의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고자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인다. '국내 최초 법정 스릴러'를 표방하는 영화 '의뢰인'은 영화 대부분을 법정 공방으로 구성했다. 영화는 법정 스릴러로서 관객의 판단을 계속해서 교란시키고 헛갈리게 한다는 점에서 장르적으로 꽤 성공적이다. 각각 변호사와 검사를 맡은 두 주연 배우 하정우와 박희순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며 극의 긴장감을 높인다. 그 바탕이 되는 논리도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다. 또 각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인과 증거가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영화가 관객에게 미끼처럼 던지는 그런 보조 장치들도 꽤 정교하게 배치된 편이다.

감독 손영성 출연 하정우, 박희순, 장혁 개봉일 9월 29일, 15세 이상 관람가

4. 컨테이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여자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갑자기 죽는다. 그녀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는 단 며칠 만에 그녀가 만난 사람, 만진 물건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인 전염병의 확산과 사람들의 반응을 다뤘다. 그러나 어느 재난·질병 영화와는 달리,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과 사람들의 입체적인 모습을 주로 비춘 것이 특징이다. 영화는 초반에 감염의 경로를 세밀하게 추적하고 후반부에는 감염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사회를 마비시키고 인간관계마저 단절시키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출연 맷 데이먼, 케이트 윈슬렛, 기네스 팰트로 개봉일 9월 22일, 12세 이상 관람가



BOOK



낭만과 물의 도시에서 보낸 한 달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골동품 같은 곳이다. 오래전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물건처럼, 풍광은 고풍스럽고 깃들어 있는 이야기도 무궁하다. 시내를 싹뚫처럼 연결하는 수로 덕분에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고, 비가 오면 광장에 물이 차오르는 독특한 도시다. 관광청에서 일하며 '여행'을 권했던 저자가 한 달간 머물 여행지로 베네치아를 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추억이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서 걷기를 좋아하는 것이 결단의 계기가 됐다. 현지인의 아파트를 빌려 여장을 푼 그는 이방인으로서 거리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생활인으로서 하루하루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그가 베네치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웅숭깊다. 보물섬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풍부한 미술관과 성당,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시장, 흥미로운 공예품으로 가득한 상점, 빨래가 나풀거리는 골목 등 베네치아만의 정서가 흐르는 장소들이 소개돼 있다.

김상아 지음/테라/244쪽/1만2천 원

미식의 나라에 숨겨진 맛의 비밀

프랑스는 중국과 함께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다. 프랑스 음식에는 깊이와 우아함이 있고,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하지만 불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공부한 뒤 국내에서 16년 동안 프랑스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저자는 "프랑스 요리만큼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디자인돼 탄생한 음식은 없다"고 말한다. 국가의 이미지처럼 음식 역시 프랑스의 권력자들이 수백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상품'이자 '문화'라는 것이다. 책에 정리된 프랑스 음식의 열쇳말은 '사디즘', '사람', '문화', '자연'이다. 사디즘은 거위의 간인 푸아그라와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얻어낸 음식을 뜻하고, 사람은 할머니의 손맛이 배인 가정요리를 의미한다. 또 문화는 미술랭 가이드와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자요리, 자연은 와인과 올리브, 치즈와 게랑드 소금을 아우르는 단어다. 프랑스 음식에 얽힌 이야기 외에 파리의 빵집, 와인 상점, 초콜릿 상점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민혜련 지음/21세기북스/316쪽/1만5천 원

길에서 인생의 길을 구하다

문화사학자인 저자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김정호를 떠올리게 한다. 400여 개의 산에 올랐고 영남대로와 삼남대로 옛길을 걸었으며, 금강에서 압록강까지 10대 강의 답사를 마쳤다. 그 결과물은 지금까지 출간된 50권에 달하는 저서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인생을 반추하며 기록한 산문집이다. 그는 오랫동안 길을 거닐며 만난 세상과 사람, 도보 여행을 하며 느꼈던 감정과 사회, '걷기 열풍' 속에서 되새겨보는 '길'의 의미 등을 담백한 문체로 서술했다. 예전에 썼던 글과 각종 문학 작품에서 인용한 문구,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그린 그림이 인상적이다. 걷기에 대해 "본질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유를 할 수 있으며, 내가 나를 만날 수 있고, 온갖 사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칭송하고, "두 발로 이 땅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불현듯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신정일 지음/상상출판/254쪽/1만3천 원

BOOK



이제는 자본주의 4.0의 시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본주의 4.0'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책이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지난해 출간한 이 책에서 2007~2009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네 번째 버전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자본주의 4.0'이다. 전통적인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1.0,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 2.0, 자유시장혁명으로 탄생한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3.0이라고 명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와 시장 모두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오류가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4.0의 시대에서는 정부와 민간 경제가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된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은 커지지만 관료주의적인 거대정부로는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크기는 줄어든다.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 위선주 옮김
컬처앤스토리/480쪽/2만 원

소비자를 속이는 가격의 비밀

9천990원으로 끝나는 흡소핑 제품, 할인 쿠폰과 포인트 적립의 속임수 등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다양한 '가격의 비밀'을 파헤쳤다. 숫자에 불과한 가격이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경우는 많다. 이런 '숫자 놀음'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원리 중 하나는 처음 제시된 수치가 판단을 좌우하는 '앵커링(Anchoring) 효과'다. 기령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을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난소암이 발생한 여성들이 미국 보건기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상의 소송에 대한 배심원이 되도록 했다. 각 그룹에 원고 측 청구 금액을 100달러, 2만 달러, 500만 달러, 10억 달러로 다르게 알려주자 똑같은 사건이었음에도 청구액이 많을 때 학생들이 평결한 배상액도 높아졌다. 식당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메뉴를 전면 배치한 후 그 아래 있는 중고기 메뉴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도 앵커링 효과를 응용한 셈이다.

윌리엄 파운드스톤 지음, 최정규·하승아 옮김
동녘사이언스/451쪽/1만8천 원

오드리 헵번과 '싱글걸'의 등장

오드리 헵번이 창문턱에 걸터앉아 '문 리버'를 부르는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제작을 둘러싼 이야기를 재구성한 책이다. 영화 관련 저술가인 저자가 2년 동안 영화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자료실을 뒤져 1950년대 말 뉴욕의 영화 촬영 현장을 생생하게 복원한 이 책은 단순히 흥미로운 '영화 뒷얘기'에 그치지않은 않는다. 당시 헵번이 연기한 여인 '홀리'에서 미국 최초의 모던 싱글걸 이미지를 읽어내는 등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영화를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트루먼 카포티가 1958년 발표한 동명의 원작 소설 속 홀리는 결혼과 정착을 거부하는 독립적인 여성이다. 헵번과 카포티는 물론, 헵번의 남편 멜 페러, 시나리오 작가 조지 액슬로드, 뮤즈를 원했던 디자이너 워버드 드 지방시 등 영화 안팎의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복원한 생생한 영화 제작 과정이 소설처럼 흥미진진하다.

샘 왓슨 지음, 노지양 옮김/이봄/320쪽/1만3천800원

CONCERT



이소라 · 김연우 · JK김동욱, '시월에...' 공연
MBC TV '나는 가수다' 출연으로 관심을 모은 이소라, 김연우, JK김동욱이 합동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10월 29~30일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2011 시월에 눈 내리는 마을'에서 함께 공연한다. '시월에 눈 내리는 마을'은 지난 1999년 시작돼 10여 년간 사랑받은 브랜드 공연으로 그간 이 무대에는 이문세, 신승훈, 이승환, 김현철, 윤종신, 성시경, 박정현, 박효신 등 실력과 가수들이 출연했다. 올해는 이 공연의 최다 출연자인 이소라와 새로이 합류한 김연우, JK김동욱이 자신들의 대

표곡과 관객들이 엠넷닷컴 내 '시월에 눈 내리는 마을' 페이지에서 투표로 선곡한 레퍼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엠넷닷컴과 인터파크에서 할 수 있다.

일 정	10월 29~30일 오후 6시,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티켓	VIP석 13만2천 원, R석 12만1천 원, S석 11만 원, A석 8만8천 원, B석 6만6천 원
주최	CJ E&M
문의	1544-6399, 1544-1555, 1566-1369

뉴에이지 뮤지션 아니, 두 번째 내한
뉴에이지 음악가인 아니(Yanni)가 10월 14일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펼친다. 아니는 지난 4월 19번째 정규 앨범 '트루스 오브 터치(Truth of Touch)'를 발표하고 월드 투어에 나섰으며 이번 한국 방문은 현대백화점 창사 40주년 기념 콘서트로 마련됐다. 그는 1995년 40인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바 있다.

아니는 이번 공연에서 히트곡 '아리아(Aria)', '산토리니(Santorini)'와 신곡 '에코 오브 어 드림(Echo of a Dream)' 등 특유의 신비로운 선율을 중심으로 대형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 정	10월 14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티켓	VIP석 27만 원, FR석 22만 원, R석 20만 원, S석 16만5천 원, A석 13만 원, B석 9만9천 원
주최	현대백화점
문의	02-3141-3488



'알앤비 대다' 김조한, 전국 투어
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알앤비(R&B) 대다'로 불리는 김조한이 10월부터 전국 투어를 시작한다. 그는 10월 28~29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등지를 돌며 '웰컴 투 러브랜드(WELCOME TO LOVE LAND)'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김조한은 "러브랜드란 동화 같은 무대에서 음악인과 인간 김조한의 다양한 모습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다"며 "나에게 새로운 의미였던

정엽, 네 번째 단독 공연 '키스'
가수 정엽이 네 번째 단독 공연을 연다. MBC TV '나는 가수다'로 주목받은 그는 10월 14~16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10월 22~23일 부산 KBS홀, 10월 29~30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키스(K.I.S.S.)'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이 무대에서 정엽은 공연 전 발매될 새 음반 수록 곡과 '나는 가수다'에서 선보인 곡, 드라마 OST, 즐겨 부르는 팝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인다. 영화 '올드보이'와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음악 감독인 작곡가 이지수 씨가 함께하며 총 3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등장한다.

소속사인 산타뮤직은 "정엽이 세 번의 단독 콘서트를 모두 매진시켰지만 최근에는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 한층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티켓 예매 시작 전부터 인터넷에 폭넓은 연령대의 팬들이 티켓 발매를 기다린다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일 정	10월 14~1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0월 22~23일 부산 KBS홀, 10월 29~30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티켓	SR석 11만 원, R석 9만9천 원, S석 7만7천 원(서울, 부산), R석 11만 원, S석 9만9천 원(대구)
주최	인넥스트트렌드, 산타뮤직
문의	1544-1555

'나는 가수다'를 통해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지난 9월 발매한 싱글 곡들과 팝 발라드, 댄스 등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노래한다.

일 정	10월 28~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티켓	VIP석 9만9천 원, R석 8만8천 원, S석 7만7천 원
주최	인터파크, 서울패밀리프로덕션
문의	1544-1555



일본 록의 전설 X-재팬, 첫 내한 공연
1990년대 한국에서 J-팝 열풍을 주도했던 X-재팬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X-재팬은 10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2011 X-재팬 라이브 인 서울'이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1985년 데뷔한 X-재팬은 스피드 메탈과 하드 록 계열에 서정적 발라드 선율을 가미한 음악으로 한일 양국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특유의 강렬한 메이크업과 파격적 헤어스타일로 독특한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이후 1997년 해체 선언, 1998년 기타리스트 히데 사망 등으로 부침을 거듭하다 2007년 재결

성해 현재 요시키, 파타, 히스, 토시, 스키조 등 5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X-재팬은 "한국 팬들이 우리를 10년 넘게 기다려 준 만큼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는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일 정	10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티켓	스탠딩 · R석 18만7천 원, S석 15만4천 원, A석 9만9천 원, B석 7만7천 원
주최	아시아브릿지컨텐츠, 케이알홀딩스컴퍼니
문의	02-548-0597~8



심수봉, 브랜드 공연 '더 심수봉 심포니'
가수 심수봉이 10월 8일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더 심수봉 심포니'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자신의 이름을 담아 기획한 첫 브랜드 공연인 만큼, 레퍼토리 전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70인조 오케스트라, 70인조 합창단과 함께 꾸민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때 그 사람',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미워요' 등의 대표 곡들이 재즈, 포크, 국악, 발라드 등으로 재편곡된 무대도 마련된다. 또 최근 데뷔 이래 처음 발표한 디지털 싱글인 신곡 '나의 신부'도 들려준다. 이 곡은 심수봉이

작사, 작곡, 편곡했다. 재즈 풍의 피아노, 1970~8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통기타, 역동적인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심수봉도 만날 수 있다. 심수봉은 2009년 30주년 기념 음반을 내고 전국 투어를 펼친 바 있다.

일 정	10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
티켓	VIP석 12만1천 원, R석 9만9천 원, S석 8만8천 원, A석 6만6천 원, B석 4만4천 원
주최	SACOM
문의	1544-1813

STAGE



고양이로 변신한 인순이, 뮤지컬 '캣츠'

뮤지컬의 고전 명작으로 꼽히는 '캣츠'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이후 올해로 탄생 30주년을 맞는다.

국내에서도 3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디바' 인순이가 늙은 암고양이 '그리자벨라' 역할을 맡아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다. 인순이는 2000년부터 뮤지컬 '시카고'에 꾸준히 출연해 왔으며 '캣츠'는 그의 두 번째 뮤지컬 출연작이다.

'캣츠'는 야성적이고 신비로운 '젤리클' 고양이들이 역동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뮤지컬로, 국내 무대에는 내한 공연으로 1994년 처음 상륙했다. 한국에 공연으로는 2008년 초연한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스타 배우들이 거쳐 가는 인기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순이와 함께 뮤지컬 여풍(女風)을 이끄는 박해미와 홍지민이 '그리자벨라'로 트리플 캐스팅됐다. 홍경수와 강연중, 유희웅 등 2008년 무대에 섰던 '터줏대감' 배우들이 대거 컴백해 안정적인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며 김성은과 이상준 등이 새 얼굴로 합류한다.

연출과 안무에 조앤 로빈슨, 음악 총감독 피츠 샤퍼 등 해외 투어 공연을 전담해 온 제작진이 방한, 원조의 맛을 살린다.

일 정 12월 31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과 12월 21·28·30일 오후 3시/8시,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7시, 서울 잠실 샤롯데씨어터
티 켓 5만~12만 원
문 의 02-501-7888



토니상 휩쓴 연극 '레드' 국내 상륙

지난해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연극 '레드(Red)'가 국내 무대에 상륙한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를 무대에서 되살려 그와 그의 조수 '켄'이 엮어내는 2인극으로 선보인다.

200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뒤 이듬해 4월 미국 브로드웨이로 건너가 제64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연극 부문 최우수 작품상, 남우조연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

극 중 배경은 1958년 뉴욕의 한 스튜디오. 마크 로스코는 고급 레스토랑 '포시즌'의 의뢰를 받고 벽화를 그려주게 된다. 그러던 중 조수를 자처하며 나타난 '켄'은 거액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로스코에게 예술성과 상업성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극하기 시작한다.

로스코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열정의 의미를 차츰 되살리게 되고 뜨거움을 상징하는 자신만의 '레드'를 찾아 나선다.

로스코와 켄은 각각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충돌과 화해를 거듭하면서 세월을 건너 나가는 세대간 소통의 의미를 담아낸다. 배우 강신일과 강필석이 각각 로스코와 켄 역할을 맡아 실제 미술 작가의 작업실에서 회화 실습을 받는 등 생생한 무대 연출을 시도한다.

일 정 10월 14일~11월 6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7시 30분, 일요일 오후 2시/6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서울 필동 동국대 이해람예술극장
티 켓 전석 4만4천 원
문 의 1544-1555

CLASSIC

마렉 야노프스키가 이끄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무대

카리스마형 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가 이끄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이 세 번째 내한 공연을 한다.

독일 베를린은 일류 교향악단을 여럿 거느린 '음악 도시'다. '스타 군단'인 베를린 필하모닉을 비롯해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등이 있다.

이 중 1932년 창단된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은 정돈된 음색과 안정된 합주력으로 클래식 음악 팬에게 잘 알려진 오케스트라다.

특히 2002년 야노프스키가 지휘봉을 잡은 뒤 독일 관현악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현대 관현악 대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안톤 브루크너 등 독일어권 작곡가의 정통 레퍼토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도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 브람스 교향곡 제3번,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등 독일 레퍼토리를 선택했다.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라디오 프랑크 필하모닉,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드레스덴 필하모닉 등의 음악감독 및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다.

일 정 10월 6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 켓 VIP석 22만 원, R석 16만 원, S석 11만 원, A석 7만 원, B석 4만 원
문 의 02-599-5743

벨기에 출신 바로크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 첫 내한

바로크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Il Gardellino)'가 첫 내한 콘서트를 연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인 '일 가르델리노(홍방울새)'에서 이름을 딴 이 단체는 벨기에 출신의 바로크 오보이스트 겸 지휘자 마르셀 풍셀을 주축으로 1988년 창단됐다.

필립 헤레베헤와 르네 야콥스, 카위켄 가문 등 바로크 음악 거장을 여럿 배출했다. 현재는 플루티스트 안 더 워너와 바이올리니스트 료 데라카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음악 전문잡지 그라모폰은 이 단체에 대해 "목관 연주에 강점을 보이는 노련하고 품위 있는 연주자들... 마르셀 풍셀과 안 더 워너는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고 평하기도 했다.

바로크 오보에는 현대 오보에에 비해 깊이 있고 그윽한 음색을 지녔지만, 키(Key)가 적고 구멍이 넓어 연주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바흐의 칸타타 '나는 만족하나다'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협연 베이스 리이븐 테르몬트),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밤' 등이 연주된다.

일 정 10월 2일 서울 LG아트센터, 10월 4일 울산 현대예술관, 10월 6일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티 켓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LG아트센터 기준)
문 의 02-2005-0114

